

B-5 자가치아 이식술의 임상증례

손은주, 정찬두, 김은경, 서은표, 김지환, 김영준, 정현주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자가 치아 이식술은 1956년 Miller가 제 1대구치 발치와에 미발육된 제 3대구치를 성공적으로 이식한 이후로 많은 임상증례의 보고가 있어 왔으며, 1991년 Kristerson은 소구치와 구치를 전치부에 성공적으로 이식시킨 증례를 보고하였다.

치아 이식술시 고려 사항으로는 이식 치아의 치근 형태, 치주인대의 상태, 치질량 및 치주학적 문제의 술전 해결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수용측의 근·원심 발치와 폭경, 치조골의 폭과 길이 등이 평가되어야 한다.

한편, Andreasen등은 치조와내 치근막의 잔류여부에 따라 예후에는 차이가 없고 중요한 것은 이식 치아 치근면의 치근막 상태이며, 또한 수용측 치조와의 적합의 차이는 예후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본 임상증례는 깊은 치아 우식증으로 인하여 보존이 불가능한 치아를 발거하고 인접한 제 3대구치를 발치와로 이식한 증례이다.

이식된 치아는 3-4주간 고정하고 근관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임시 치관 상태로 3-5개월 정도 관찰 후 최종 보철물을 시행하였다.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별다른 이상 없는 경과를 보이고 있으며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치근흡수나 치근 유착의 소견도 보이지 않고 있다.